



LOVE LETTER

임무영 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라틴어 중에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가면’이지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야 하는 강박관념은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단 연애인이나 정치인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30세대의 대다수가 ‘스마일마스크 증후군’을 겪어 봤다고 대답을 해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30 남녀 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스마일마스크 증후군에 빠진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자 자아의 어두운 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거나 현재 내가 품고 있는 감정과는 상관없는 표정을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면 열심히 웃고 있지만, 그 안의 얼굴은 울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자신의 얼굴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면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일마스크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늘 웃고 다닌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는 남들에게 들리고 싶지 않은,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솔직히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볼수 있는 내용을 소재로한 프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는 자녀들과 함께 보기에 너무나 좋은 프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생활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통해 매정한 이미지로 보여질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 속에서 주인공들은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과장되지 않은 이들의 담백한 스토리가 그래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주인공 중에 ‘익준’이라는 인물에 참 호감이 갔습니다. 늘 밝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의기소침해 지지 않고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익준의 모습은 제가 느꼈던 그 모습만이 전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중에 나왔던 한 에피소드인데요. 이전에 간이식 수술을 받았던 한 여성이 수술 후 약을 챙겨먹지 않아 컨디션이 매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에게 간을 제공해준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그 배신감 때문에 치료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익준은 여러 차례 그러면 안 된다고 달래보지만 환자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익준은 퇴근 한 후 평상복차림으로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했어요. 그간 밤새 병원일 하고 혼자 애 돌보며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 처음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원망하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이제 남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약 드시고 악착같이 건강 회복하세요” 부족함이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익준의 아픈 고백 앞에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약봉지를 열게 됩니다.

“아! 익준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 아픔을 품고 환자들에게 늘 웃는 모습으로 다가갔을 그도 스마일마스크 증후군에 시달렸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브릿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시겠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사람을 앞에서 웃어야만 하는 성도들,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 못하는 성도들...” 이상하게 이번 한 주는 이런 성도들을 때문에 기도가 더 절실해 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브릿지교회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윤예원 전도사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el: 260-602-9061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이중희 집사

헌금찬송.....다같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송가 438 장 / 통 495장)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누가복음 13장 10-21절 (신약, P. 117)
(Luke 13: 10-21)

설교.....임무영 목사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 설교후 찬양.....다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 축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환영: 오늘 브릿지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공지사항

- a. 친교(성도간 사랑의 식탁교제)재개: 3/6(주일)부터
- b. 3-4월 친교는 사랑방별로 식사전행 (사랑방별 테이블 셋업)
- c. 예배시 마스크 착용은 우선 3월 한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3월 이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공지예정
- d. 3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e. 2022년도 생명의 삶(3월호) Pick up (문의: 위경미)
- f. 2022년 사순절 시작: 3/2(수)-4/16(토)
- g.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예배및 훈련

- a. 토요새벽예배 (로마서 강해 15): 3/5(토) 6am, 현장및 Zoom
- b. 1부예배(봉사자 예배) 시작: 10:30am / 소예배실
- c. 3월 성찬예배: 3/6(주일)
- d. 2022년도 전반기 말씀묵상 훈련 5주차: 3/2(수), 7:30pm / Zoom (전체카톡방 참조)
-내용: 사무엘하 (5주과정)
-등록비: \$30.00 (5주 훈련을 모두 참석하신 분들께는 등록비 100% Refund)
- e. 브릿지 복음학교 1기 모집 (세례교육 포함)
-기간: 3/6(주일), 13(주일), 20(주일), 27(주일) 예배 후 (약 1시간소요예정)
-장소: 소예배실 / 대상: 복음을 알고 싶은 분, 복음을 다시한번 경험하고 싶은 분
-내용: 기독교 기초교리(간주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청: 임무영 담임목사 (260-602-9061 or Lmy99307083@gmail.com)

4.모임 및 모집

- a. 차세대팀: 유치부 교사 (문의: 이은신 전도사, 황은수)
- b. 찬양팀: 싱어(남/여), 악기(베이스 기타) (문의: 심진욱, 이사무엘)
- c. 미디어팀: 예배 카메라 작동, 홈페이지 구축및 관리 도움 (문의: 이세형, 김정근)
- d. 부활절 칸타타 성가대 모집: 2/27(주일), 예배 후 분당 (문의: 이신숙)
- e. 확대운영위원회 모임(운영위원 및 팀장): 3/12(토), 5:30pm / 박지웅 집사 가정
- f. 유치부 PTA 모임: 3/14(주일)

5.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박지웅 / 다음주: 조희선, 안성민
- b. 다음 주기도: 위경미
- c. 3월 안내및 헌금위원: 김묘신, 표춘자 (안내) / 신성호, 손유기 (헌금)

6. 기도제목

- a.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위해
- b.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
- c. 환우 성도들을 위해
- d.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들을 위해
- f. John Oh 성도 (골수이식 / 문의: 송호남)

7. 지난 주 출석: 어른(83), 다음세대(21)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소예배실	
주일예배 2부	12:00 pm	본 당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동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